디지털·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3대 전략 제시

전남도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광양항 AI 접목 '스마트 항만' 구축·화순 복합의료단지 조성
그린 뉴딜 최적 사업 12만개 일자리 해상풍력발전단지 구축
바이오 임상센터 등 5조 규모 69개 사업 정부 계획 연계 추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응해 전남도가 지역 현안의 디지털 뉴딜 연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그린뉴딜 적극 대응,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전남도는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에 따라 전남도와 관련한 사업 발굴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 및 부처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 지역 핵심 현안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전남 산단 대개조 등이 포함돼 관련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는데 공감하고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과 전남도의 핵심사업이 정확히 일치한다"며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전남도의 3대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전남도의 한국판 뉴딜 연계 3대 추진 전략은 디지털 뉴딜 연계, 지역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그린뉴딜 적극 대응,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첫째, 전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D.N.A(Data-Network-Ai) 생태계 강화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을 연계해 현안 사업들을 실현하기로 했다.

광양항을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접목한 로테르담형 '스마트 항만'으로 구축하고, 광양만권 일원을 저탄소·지능형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육성한다.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화순에 백신산업특구 등 바이오·의약 인프라와 풍부한 천연물 자원을 기반으로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고흥에는 미래비행체 테스트베드와 영광의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도정 전반에 걸쳐 언택트 비대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그린 뉴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1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남형 상생일자리' 모델인 8.2GW 대규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그린 뉴딜 실현의 최적 프로젝트로 제시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등으로 해상풍력 산업을 선도하고 기술개발과 전후방 산업 인프라도 갖출 계획이다.

도민과 수익을 공유하는 '도민발전소' 5GW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한 'RE100 전용 시범 국가산업단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50개 조성,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셋째,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및 생계지원이 필요한 9500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420억원 규모의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올해 도내 농어촌 34개소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공공장소 와이파이도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3대 전략을 통해 광양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구축, 인공지능기반 면역치료 중심 바이오 임상지원센터 구축 등 5조원 규모 69건의 사업을 정부 계획과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한국판 뉴딜과 (전남의 새천년 비전인) 블루이코노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남 미래 발전을 담보하는 좋은 기회"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판 뉴딜 추진 전남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

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 벌게 할 것…공급 확대도 적극 강구"

21대 국회 개원 연설
임대차 3법·공수처장 추천 등
국회 초당적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 연설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의 입법 필요성을 거론한 문 대통령은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20대 국회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 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다.

법이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일(7월 15일)이 지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 등을 언급,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며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기사회생 대권구도 양강체제 굳히나

민주당 전대 영향도 주목

여권의 유력 잠룡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사회생하면서 차기 대권 구도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지지율 선두를 구가해온 이낙연 의원과 여권 내 양강구도를 형성하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이미 4·15 총선 전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재난지원금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여론의 호평으로 지지율이 2위로 올라섰으며 최근에는 이 의원과 이 지사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좁혀진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당선 무효 가능성'이라는 최대 변수를 떨쳐내면서 지지율 상승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현재 여권 주자 가운데 지지율 5%를 넘기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양강 구도가 뚜렷해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생환은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라며 "다음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과 이 지사는 삶의 역정과 정치 스타일이 극명하게 달라 대결 구도가 더욱 확연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호남의 명문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의원은 대학 졸업 후 기자, 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남지사를 거쳐 국무총리를 지내기까지 순탄한 엘리트의 길을 걸었다. 언행에 빈 틈이 없고 일처리가 매우 꼼꼼해 안정적 이미지가 크지만 '엄중'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현안에 지나치게 신중한 게 흠이라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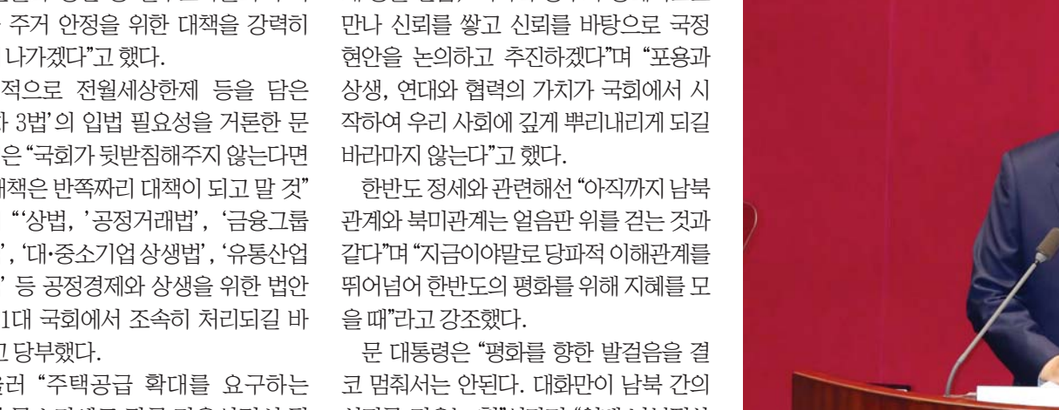
반면 이 지사는 소년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하다 장애인이 된 흙수저의 상징이다. 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에 입학해 사시에 합격했고, 노동 인권변호사를 거쳐 성남시장, 경기지사가 됐다. 불도저 이미지로 강력한 리더십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와 맞아떨어진다는 평가다. 하지만 포퓰리즘 성향의 정책과 각종 스캔들, 친문 열성 지지층의 반감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이번 판결이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8·29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전반적인 판세는 '어대낙'(어차피 당 대표는 이낙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낙연 대세론'이 형성된 상황이지만 이재명 변수가 부상하면서 장외주자들의 견제심리가 증폭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지사가 지지세를 등에 업고 여의도 정치에 관여하며 세력화에 나설 경우 이 의원의 독주 체제에 적잖은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당분간 로우-키를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대선을 대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를 반영하듯, 이 지사는 이날 대법 판결 이후, "저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님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문재인 대통령님과 민주당이 지향하는 일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 200107-중-103754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겨울철 넘어짐 골절질환
" 척추골절, 손목골절, 고관절골절 "
첨단우리병원에서 치료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옅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1566-9988